

## 담배는,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 4. 부모의 흡연이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족 내에서 부모 또는 부모중의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함께 사는 어린이는 아직 모든 세포가 성숙되지 않아 어른보다 더욱 해를 많이 받는다.

첫째, 어린이의 상기도염(감기, 기침, 기관지염 및 폐렴)의 감염율이 약 2배 높아진다.

둘째,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70%나 더 높아진다.

셋째, 어려서 담배연기에 의하여 호흡기가 상한 어린이는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호흡기 감염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다.

넷째, 어린이의 천식과 부모의 흡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어린이의 중이염 발생을 촉진시킨다.

여섯째, 어린이의 신체 성장과 지능 발육에 지장을 준다.

### 5. 흡연권과 혐연권

금연운동에 대해 『왜 남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간섭하느냐,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호이며 혐연권이 있으면 흡연권도 있지 않겠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흡연권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첫째, 흡연행위는 한마디로 틀림없는 자살행위이다.

둘째, 흡연행위는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나 길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행위이다.

셋째, 담배를 피우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게도 간접흡연을 통한 피해를 준다.

넷째, 같은 의료보험료를 내고서도 흡연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더 많은 보험료를 사용함으로써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

다섯째, 산불 그리고 각종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며 국가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세금으로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이러한 몇가지 이유만을 들어보아도 흡연권은 있을 수 없으며 혐연권을 주장하는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㉞